

모자가족의 어머니와 자녀가 지각한 가족기능의 특성

권복순*

이 연구는 모자가족의 가족기능 향상을 위하여 가족기능의 특성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McMaster FAD와 McCubbin 등의 FSI를 사용하여 저소득 모자가족의 가족기능에 관한 모·자의 지각상태를 조사하였다. 설문지는 FAD의 문제해결, 의사소통, 역할, 정서적 반응성, 정서적 관여, 행동통제 및 일반적 기능의 7개 하위영역과 FSI(가족긴장척도)를 포함한 8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다. 모자가족은 어머니의 경우 일반가족 어머니에 비하여, 자녀의 경우 일반가족 자녀에 비하여 가족기능의 하위영역 전반에 걸쳐 낮은 수준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자가족의 어머니와 자녀는 자신의 가족기능 평가에서 문제해결기능, 정서적 반응기능, 정서적 관여기능 및 일반적 기능의 평가에 관해서는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모자가족의 어머니는 역할기능과 행동통제 기능에서 자녀보다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었고, 모자가족의 자녀는 의사소통 기능에서 어머니보다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모자가족이 된 기간이 7년 미만인 가족이 7년 이상인 가족보다 가족기능의 모든 하위영역에서 낮은 수준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7년 이상인 가족은 역할기능과 행동통제 기능에서 일반가족보다 낮은 수준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모자가족의 가족기능은 일반가족보다 낮은 수준이며, 가정마다 가족기능의 특성

* 대구 효성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가족기능 향상 프로그램은 각 가족의 특성에 부합하도록 개별화되어야 한다.

1. 서론

모자가족은 사별이나 이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어머니와 소수의 자녀로 구성된 가족으로서, 구조적 측면으로는 동질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기능적 측면으로 보면 다양성이 내포되어 있다. 아버지 상실감이 항상 내재하는 모자가족에서 어머니와 자녀들은 감정표현에서 소극적 태도를 취하게 되거나 과도하게 표출하는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이며(Turner & Helms, 1983: 312), 어머니의 자녀통제 능력에 따라 과잉보호나 보호결핍 등의 형태로 나타나는 등 기능적 측면에서 보면 다양한 문제를 나타낸다.

이혼으로 인한 모자가족의 자녀들은 부모의 불화관계에서 야기된 부정적 감정의 영향을 받아서 적응의 어려움이 오래간다고 하며(Wallerstain et. al., 1980, 조성혜, 1997 재인용), 이 밖에도 어머니가 가사와 양육의 부담을 느끼는 정도에 따라 혹은 가족의 문제나 심리적 지지를 교류하며 공유하는 정도에 따라 가족의 기능은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특히, 저소득 모자가족은 소득이 안정된 가족에 비하여 겪는 어려움이 크다. 저소득 모자가족은 주거마련과 생활비 그리고 자녀교육비의 충당에 안간힘을 쓰면서, 자녀양육과 자녀교육 등 자녀와의 관계를 다스리는 문제를 일상생활에서 가장 힘든 점으로 호소하고 있다(박영란·강철희, 1999; 전재일 외, 1997; 조희선, 1991; Jung, 1996). 이들 모자간의 관계의 질은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친밀성, 부모의 자녀통제와 훈육,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 등 가족성원의 상호작용으로 빚어지는 심리역동적 환경(남영옥, 1998)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면서 다시 가족의 경제적 생산능력 확보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저소득 모자가족의 어머니가 가족관계에서 느끼는 이러한 일상생활의 문제는 “어머니와 자녀와의 상호작용” 등 가족의 기능적 측면에서의 접근을 요구하고 있으며, 모자가족의 안녕과 복지를 위하여 시급히 고려되어야 할 과제이다.

저소득 모자가족을 도와주는 사회복지관은 경제적 지원과 함께 어머니 자조집단, 가족교육, 의사소통방법, 자녀 이해하기, 부모교육 및 가족캠프 등 가족기능의 향상

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족기능 향상 프로그램은 자녀의 욕구와 어머니의 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지 못한 점이 많다. 예를 들면, 자녀들이 어느 정도 자란 경우에 어머니 자신에 관한 것에 관심을 더 가지고 싶어하지만, 그러한 욕구를 개별화하여 수용하고 해결해 줄 적절한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또한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모자가족이 된 기간이 약 7년 정도 경과된 경우와 그 미만인 경우에서 서로 다른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 자주 관찰되지만 그에 상응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모자가족의 가족기능의 특성을 파악하여 그 다양성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모자가족의 어머니와 자녀간의 가족기능에 대한 지각정도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자가족의 가족기능은 일반가족¹⁾과 비교하여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2. 모자가족의 가족기능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1) 가족기능의 개념

가족기능이란 가족체계 내의 개인성원의 위치와 역할, 그리고 가족체계 밖의 관계에서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 등 개인성원으로서 동시에 전체가족으로서 정체성과 관계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개념이다. 가족기능은 가족이 수행하는 역할 또는 행위를 뜻하지만, 고정된 역할기대와 역할수행으로 구성된 결과가 아니라 가족성원의 변화, 가족구조의 변화, 사회의 변화에 따라 그 내용과 범위, 비중 등이 조절될 수 있으며,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 자체도 포함한다(유영주, 1993: 43). 가족기능을 가족성원 상호간의 역동적인 관계에서 파악해 볼 때 가족기능이 좋은 가족일수록 서로간의 지지도가 높으며 개인의 역할 수행이 용이하다고 볼 수 있으며, 가족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서는 가족성원간의 상호협동과 가족내의 자원을 적절히 이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중요하다(권윤정, 1995).

1) 일반가족은 아버지와 어머니와 그 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말한다.

전통적으로 가족기능을 경제적 기능, 보호의 기능, 교육의 기능, 종교적 기능, 지위부여 기능과 애정적 기능으로 구분하며, 이정우 등(1990)은 가족기능을 성적 통제기능, 생식기능, 애정의 기능, 자녀양육과 사회화의 기능, 교육의 기능, 지위부여 기능, 경제적 기능, 보호의 기능, 휴식의 기능, 오락의 기능, 종교의 기능으로 정리하였다(권윤정, 1995: 17). 이 분류는 가족이 하나의 사회제도로서 기능하는 측면을 보여주지만 하나의 체계로서의 가족기능의 특성은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가족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의 내적 기능으로서 심리적 자원, 가족관계적 자원, 사회적 자원 및 경제적 자원을 들고 있다. 심리적 자원은 성 역할 태도와 통제감, 가족관계적 자원은 애착과 자율성, 사회적 자원은 사회관계망의 지지 정도, 심리적 적응은 우울감과 자존감, 그리고 경제적 자원은 소득과 생활수준으로 세분하였다(신화영·조병은, 1996). 이 분류는 가족체계내의 자원으로 표현되는 에너지의 정적인 상태를 보여줄 수는 있으나 에너지 교류의 역동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한편 가족체계론적 관점에서 가족기능은 가족체계의 성장, 연속, 생존유지에 필요한 활동으로서 그 활동은 가족성원을 상호작용적 역동관계에 있게 하며, 가족성원간에 일어나는 교류의 양과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가족기능적 요소는 McMaster 가족사정도구(The McMaster Family Assessment Dvice: FAD)에 잘 나타나 있다. FAD는 가족기능이 가족성원 개인의 정신 내적 특성보다도 가족체계의 교류와 체계에 대한 개인의 체계적 지각(*perception*)과 더 깊이 연관이 있다고 주장한다. FAD는 문제해결 기능, 의사소통 기능, 역할기능, 정서적 반응기능, 정서적 관여기능, 행동통제 기능, 일반적 기능 등을 7가지 하위영역을 포함한다. 각각의 하위영역은 개별적으로도 가족기능의 부분적 특성을 보여주며 전체적으로 가족성원간의 교류의 전반적 경향을 표현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Epstein et. al., 1983). 한편 FAD는 가족성원간의 상호작용에 수반될 수 있는 긴장 정도를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고, 사회적 지지 등 가족체계 외적 관계성을 측정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모자가족이나 소년소녀가장 가구와 같이 구조적 결손이 있거나 자원의 결핍이 심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가족긴장의 정도가 가족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FAD는 이를 다룰 수 없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McCubbin, Patterson Wilson(1982)에 의해 개발된 가족긴장척도(Family Strain Index: FSI)를 가족기능 하위영역의 범주에 첨가하였다. FSI는 가족성원간의 의사소통이나 문제해결을 중심으로 가족긴장을 측정하는 도구이

다. 가족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회적 지지 등 가족체계 외적 관계에도 존재하지만 이 연구의 범위 밖이므로 다루지 않는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FAD와 FSI를 연구의 분석틀로 삼아 가족성원간에 교류되는 기능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2) 모자가족의 가족기능 특성

모든 가족이 항상 순기능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며 또한 모든 가족이 가족주기를 통하여 특정시기에 한시적으로 역기능적인 부분을 한두 가지 이상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가족구조상 “가장” 혹은 “남편” 혹은 “아버지”가 부재한 모자가족은 그 사실이 바로 가족구조적 특성이듯이 그 특성의 영향으로 가족기능에도 어떤 특성적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FAD식 가족기능 분류와 가족긴장도를 포함한 8가지 하위영역에 따라 선행연구에 나타난 모자가족의 가족기능의 특성을 알아보하고자 한다.

(1) 문제해결 기능

문제해결 기능은 가족 내·외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말한다. 모자가족이 경험하는 문제는 경제적 문제, 정서적 문제, 대인관계 문제, 자녀문제 및 역할 재조정 문제(조성혜, 1997: 3), 자녀양육과 자녀교육의 문제(전재일 외, 1997), 가족성원간의 갈등해결 및 위기상황의 극복 등이 있다. 모자가족에서는 한정된 시간내에 위기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변화·성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위기적 생활이 계속 되어지면 어머니와 자녀간의 관계는 부정적으로 변화하며 내부적인 불일치가 증가하게 되어 높은 스트레스로 경험하게 된다.

(2) 의사소통 기능

의사소통 기능은 가족내에서 가족이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이다. 가족기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의사소통이란 점에 임상가들은 공통적으로 동의한다(Bomar, 1990; Olson, 1983). 이것은 가족성원간의 정서적 유대감, 가족내의 역할, 규칙, 힘 등이 의사소통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기능적인 가족은 서로 염려하고 개방적이고 공감적이고 신뢰에 찬 의사소통을 하며, 가족성원이 서로 상대방을 지배하려 하지 않고 타인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 역기능적인 가족에서의 반응

은 대인관계에서 거리감과 적대감을 느끼고 서로 수동적이고 협의가 없이 무력하고 억제된 반응을 보인다(김순자, 1997; 정문자·송성자, 1994).

청소년들은 기성세대와 의견의 차이가 많으므로 어머니와 의사소통이 원만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모자가족의 어머니는 스스로 느끼는 문제가 많아서 자녀와의 의사소통, 애정표현 등이 부족하게 되고(Amato, 1987), 어머니와 자녀간 그리고 형제간에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는(정현숙·서동인, 1996) 결과가 나타난다.

(3) 역할기능

역할기능은 가사를 분담하여 담당하는 행동유형을 의미하며, 자원공급, 양육과 지지제공, 개인의 발달지지, 가족체계 유지, 성인의 성적 만족 등을 포함한다. 역할기능은 역할기대와 역할수행으로 나누어지며 가족내에서의 지위의 변화에 따라 역할이 적응되어야 한다. 모자가족의 어머니와 자녀는 공백상태가 되어버린 아버지의 역할을 메우고 분담해야 하는 긴장과 갈등을 경험한다.

모자가족의 자녀들은 일반가족의 자녀보다 집안일을 더 많이 책임지고 있다(Amato, 1987)는 연구결과가 보여주듯이 자녀 특히, 딸자녀가 아들인 경우는 자녀로서의 역할을 기대받던 것으로부터 아버지의 역할을 기대받게 됨으로써 역할혼란을 경험하게 되며(조홍식 외, 1998), 딸자녀가 딸인 경우는 어머니의 가사부담을 분담해야 하는 역할과잉을 경험한다.

모자가족의 대부분의 어머니는 자녀에게 아버지의 역할을 하면서 생계를 위해 직업에 전념하게 되는데, 이 경우 과중한 역할수행으로 인해 자신이 지칠 뿐만 아니라 자녀에 대해 충분히 돌보아 주지 못한다는 죄책감 때문에 자녀양육 문제가 감정적으로 흐르기가 쉽고 일관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 결과 새로운 역할관계에 순응하고 적응하기보다는 기존의 역할과 구조적인 지지체계가 소멸된다는 점만을 더 깊이 인식하게 된다. 이것은 개인을 형성하고 있는 정체감의 근원과 재정적인 지원, 사회적 관계를 상실하게 되어 역할 없는 역할에 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한국여성개발원, 1984; 조홍식 외, 1998).

(4) 정서적 반응기능

정서적 반응기능은 가족성원 개개인이 일상생활 안에서 정서적으로 반응하는 모습

의 적절성을 의미한다. 가족들은 서로의 반응을 통하여 상대의 정서를 경험하게 된다. 어떤 자극에 의하여 발생한 정서는 적절한 표현양식을 통하여 배출되어야 정신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정서적 반응은 배출 내용의 적절성이 중요하다.

모자가족이 될 때의 상황이 더 위기적인 여성들은 그렇지 않은 여성들에 비하여 대인관계에서 충족되지 못한 욕구가 더 많다고 스스로 느끼고 있는데, 사별한 배우자에 대한 분노와 죄책감과 슬픔과 같은 정서를 표현할 기회가 적절하게 주어지지 못했다고 느끼고 있으며 그 결과 분노는 더욱 강화된다고 하였다(Vachon, 1982, 김선영, 1990 재인용). 정서적 반응이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다른 연구에서도 입증되는데, 예를 들면 정신과 환자에게 있어서 가족의 정서적 표출 정도가 재발률에도 관계된다(김순자, 1997; Miklowitz 외, 1984; Leff, 1981). 그러므로 이별이란 큰 사건을 경험한 모자가족에게 정서적 반응은 중요한 가족기능의 지표가 된다.

(5) 정서적 관여기능

정서적 관여의 기능은 가족성원들이 다른 가족성원이 하는 활동이나 일에 관심을 가지거나 관여하는 정도를 지칭한다. 건강하게 기능하는 가족은 관심이 지나치지 않고 중간정도의 관심을 보인다.

정서적 관여는 지나친 간섭, 부족한 보살핌과 넘치는 보살핌, 비판적인 표현으로 상대방을 무시하는 태도, 죄책감을 유발하는 언행, 부모의 생각을 강요하는 의사표현, 상대방의 희생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언어적·비언어적 메시지, 응집력이 부족한 분위기, 협력을 구하는 노력의 부재나 지나친 기대와 협동경험의 부재 등이 있다. 모자가족의 어머니와 자녀들이 부적절한 역할을 보충 수행하는 것은 결국 정서적으로 부적절하게 관여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6) 행동통제 기능

행동통제 기능은 가족성원들이 이미 행동규범으로 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거나 그 방식을 유지하는 기능이다. 청소년 자녀의 행동통제의 능력은 부모의 훈육방식과 사회적 관습 및 규범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며, 성인의 경우 행동통제 능력은 자신이 인식하는 유능감(김동배·권중돈, 1998)의 정도와 관계된다.

모자가족의 어머니는 청소년 자녀들에 대한 행동통제 정도가 일반가족의 어머니보

다 약간 낮은 경향을 보였는데, 그 이유는 어머니의 지도감독이 상대적으로 소홀한 때문이기도 하며 동시에 모자가족의 자녀들이 비교적 빨리 성숙되므로 엄한 통제가 필요 없는 때문이기도 하다(Amato, 1987). 모자가족의 자녀는 일반가족의 자녀에 비해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감독권 및 동일시 대상의 상실, 그리고 사회적 통념과 편견에서 오는 압박감과 열등감 등이 자녀의 행동통제 능력 습득에 영향을 준다(조홍식 외, 1998: 207)고 한다. 모자가족의 자녀는 일반가족의 자녀보다 자신의 가족은 가족내 질서가 잡혀있지 않고, 가족성원간의 협상 능력이 부족하며, 훈육방식 면에서 더 부정적으로 지각하였다(고성혜·한유진, 1996; 김준호·김선애, 1996).

(7) 일반적 기능

일반적 기능은 이상의 6개 영역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면서 가족기능의 전체적 능력을 보여준다. 가족기능을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조금씩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고 가족성원들이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그 특성들이 상호교류되면서 가족기능의 전체적 모습을 드러낸다.

(8) 가족긴장도

긴장(*strain*)은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아 지치는 상태(Lazarus, 김정희 역, 1991: 13)를 말한다. 개인의 내적 욕구, 환경의 욕구, 문화적으로 해석된 가치 및 목적 등이 조화를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개인이 인식한 욕구와 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능력간의 차이를 인지함으로써 발생하는 고통스런 상태가 스트레스(Germain & Gitterman, 1980)이다.

저소득 모자가족의 어머니는 빈곤의 만성적 긴장과 부모역할 과중으로 생활에서 취약성이 가중될 수 있고, 이는 어머니의 무력감과 절망감이라는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Richard, 1993; 박영란·강철희, 1999). 사별 모자가족의 어머니는 동년배의 유배우여성이나 미혼여성에 비하여 빈곤해질 가능성이 더 많으며, 사회적 고립과 정서적 혼란으로 인하여 특정한 사회적 기능이 없이 방치될 가능성이 더 많다. 이러한 사회적 지지의 결핍은 긴장을 가중(김선영, 1990)시키게 된다.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것처럼 모자가족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가족의 역기능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가 어머니를 중심으로 특정한

가족기능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을 뿐, 가족 전체의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고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FAD와 FSI를 사용하여 어머니와 자녀를 통하여 가족기능의 다양성과 전체성을 동시에 파악하고자 한다.

3. 조사 방법

1) 조사 대상

이 연구는 모자가족의 가족기능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의 영구 임대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모자가족의 어머니와 중·고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비교집단으로 같은 영구 임대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일반가족의 어머니와 중·고등학생 자녀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대부분의 가정생활에서 경제적 조건이 생활의 다른 부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모자가족의 경우에도 경제적 조건을 통제하기 위하여 저소득층으로 한정되었고, 저소득층이 밀집한 영구 임대아파트 지역을 선택하였다. 이곳에서는 모자가족을 만나기 쉽다는 용이성과 다른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도 매우 비슷한 조건이므로 조사대상의 동질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과 지역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주민들의 상태를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참고자원이 되어주는 이점이 있었다.

모자가족과 일반가족 모두 평소 자녀들이 사회복지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가정으로서 복지관의 명단자료에서 무작위로 선택하였다.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로 한정된 이유는 우선, 저소득모자가족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인데 자녀의 나이가 18세 이상이면 법적 보호를 받은 모자세대에서 탈락된다. 초등학생 이하는 예비조사 과정에서 이 연구의 설문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그러나 지역과 자녀의 연령이 한정된 점은 조사결과를 일반화시키는 데 제한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 조사에 응답한 모자가족의 어머니가 290명, 자녀가 434명이며, 일반가족의 어머니는 279명, 자녀가 446명으로 총 1,449명이다.

2) 조사 도구

이 연구에서는 두 가지 조사도구를 사용하였다. 하나는 McMaster 가족사정도구(The McMaster Family Assessment Device: FAD)인데 가족기능의 하위영역인 문제해결, 의사소통, 역할, 정서적 반응성, 정서적 관여, 행동통제와 일반적 기능을 포함한 7개 영역을 측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FAD는 검사도구로서 가능한 한 가장 간단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문제의 영역을 밝히고자 고안된 것이며, 가족성원으로부터 직접, 전체로서의 가족체계에 관한 다양한 영역에 걸친 정보를 수집하도록 구성되었다.

최초에 이 도구가 개발된 때는 24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나, 원 저자 팀에 의하여 여러 차례의 검증을 거쳐 53문항으로 조정되었다. 한국에서는 정수경(1993), 김순자(1997) 그리고 박소라(1998) 등에 의하여 사용되면서 한국실정에 맞게 표현이 다듬어지는 과정에서 한국실정에 부적합한 문항 2개가 제외된 51문항으로 고정되었다. Likert식 4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기능이 좋은 것으로 판정된다. 김순자(1997)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77에서 .84로 나타나, 53문항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alpha = .74에서 .92와 크게 차이나지 않는 수준을 유지하여 상당히 신뢰성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두번째 조사도구는 가족긴장척도(Family Strain Index: FSI)로서 McCubbin, Patterson & Wilson(1982; 이영애, 1995 재인용)에 의해 개발된 도구로서 가족이 경험하는 생활사건의 긴장을 측정하는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마다 가중치가 다르게 주어져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긴장이 높은 것으로 판정된다. 이 연구에서는 이영애(1995)가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원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69이며 이영애의 연구에서는 cronbach alpha = .68이다. 이 가족긴장척도는 어머니에게만 사용하고 자녀에게는 사용하지 않았다.

3) 자료 수집

이 연구는 예비조사와 본 조사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1999년 7월 20일에서 3일간 영구 임대아파트 단지내에 소재한 1개의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연구자가 사회복지사들의 협조를 얻어 방문조사하였다. 예비조사에서는 대상자를 만나는 방법과

대상자들의 문항 이해도 파악에 초점을 두고 조사가능성을 타진하였고, 두 가지 척도를 병행 실시하는 데 대한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본 조사를 실시해도 좋다는 결정을 얻었다.

이 조사는 8월 11일에서 24일에 걸쳐 수행되었으며, 대구광역시 영구 임대아파트 단지에 소재한 20개 사회복지관의 모자가족 담당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학과 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한 후, 이들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일대일 면접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응답자 직접 기입방식을 채택하였다. 설문지응답이 부실한 9부를 제외한 총 1,440부, 즉 모자가족의 어머니 285부, 자녀 434부, 일반가족의 어머니 275부, 자녀 446부를 실제 분석에 사용하였다.

4) 자료 처리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WINDOW 8.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기법은 모자가족의 가족기능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어머니와 자녀의 가족기능 점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사용하였다.

모자가족의 기능과 모자가족이 된 기간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기간을 설정하였다. 연구자의 모자가족과 관련된 사회복지실천 경험에서 약 3년 시점이 위기적 상황을 극복하는 분기점이 되며, 7년 정도는 안정권에 진입하는 시기(조희선, 1991)인 것이 자주 관찰되었다. 또한 모자보호시설에서 초기 자립기간을 3년 이내(모자복지법 시행규칙 제4호 ①항)로 규정한 점을 참고하여 어머니의 경우 모자가족이 된 기간에 따라 0~3년 이하 집단, 4~6년 집단, 그리고 7년 이상 집단으로 구분하였고 일반가족은 단일집단으로 하여 함께 4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자료처리의 편의상 집단구분을 “어머니집단 유형”이라 명명하였다.

모자가족과 일반가족의 어머니와 자녀들이 지각하고 있는 가족기능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집단 유형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가족기능 7개 하위영역과 가족 긴장척도의 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MANOVA를 활용하였다. 그리고 사후검증은 Scheffe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자녀의 경우는 모자가족자녀집단과 일반가족자녀집단으로 나누어 어머니의 경우와 같은 통계절차를 거쳐 분석하였다.

4. 조사결과 분석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이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연령분포는 모자가족의 어머니는 40대가 62.1%, 30대가 28.0%로, 일반가족의 어머니는 40대가 57.9%, 30대가 27.4%로서 두 집단이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월평균 수입의 정도는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모자가족은 94.4%, 일반가족은 43.9%가 응답하였고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의 경우에 일반가족의 40.3%가 응답하여 모자가족의 경제사정이 훨씬 더 열악했다.

어머니의 학력정도는 모자가족의 경우에 중졸 34.2%, 초등졸 32.2%, 고졸 24.0%의 순이고 일반가족의 경우는 고졸 40.1%, 중졸 26.6%, 초등졸 15.5%의 순으로 나타나 일반가족이 더 높았다. 모자가족이 된 이유로는 사별이 61.6%, 이혼이 23.7%, 배우자의 가출 또는 행방불명이 5.9%, 미혼모임이 2.0% 그리고 배우자로부터 유기당함이 1.4%로 나타났다.

중·고등학생 자녀의 전체 자녀에 대한 비율은 모자가족의 경우 76.0%이고 일반가족은 60.1%로 나타나 자녀분포는 두 집단 모두 중·고등학생 또래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취업률에서 모자가족은 64.2%, 일반가족은 41.7%로 모자가족 어머니들 가운데 취업자가 더 많았다. 직종별로는 근로직에선 모자가족(21.2%)이 일반가족(10.6%)의 2배 정도, 파출업에는 모자가족(12.7%)이 일반가족(3.4%)의 4배에 달하고, 회사원은 일반가족(8.0%)이 모자가족(4.0%)의 2배가 되었다. 종사하는 직업종류는 비슷하나 직종별분포는 모자가족 어머니가 일용직에 많이 종사하고 있는 셈이다.

조사대상이 모자가족이 된 사유는 박영란·강철희(1999)가 행한 전국 규모의 조사에 나타난 재가모자가족의 사별 62%와는 같은 수준이고 이혼 14.7%보다는 더 높았다. 그리고 어머니의 교육정도도 재가모자가족의 교육정도 중졸 34.7%, 초등졸 31.5%, 고졸 28.2%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전체적으로 어머니의 연령, 교육수준, 자녀연령, 지역사회 문화적 배경은 두 집단이 비슷하고, 수입정도와 직업은 모자가족이 일반가족보다 약간 낮지만 큰 차이는 아니다. 이 연구대상인 모자가족은 저소

〈표 1〉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 분		모자가족 (N=354)		일반가족 (N=387)	
		N	%	N	%
연 령	30세 미만	1	3	9	2.3
	30세 이상~40세 미만	99	28.0	106	27.4
	40세 이상~50세 미만	220	62.1	224	57.9
	50세 이상	34	9.6	48	12.4
	무응답	-	-	-	-
학 력	초등졸	114	32.2	60	15.5
	중졸	121	34.2	103	26.6
	고등졸	85	24.0	155	40.1
	전문대졸	12	3.4	28	7.2
	대학졸	4	1.1	27	7.0
	기타	17	4.8	12	3.1
	무응답	1	3	2	5
직 업	근로직	75	21.2	41	10.6
	회사원	14	4.0	31	8.0
	파출원	45	12.7	13	3.4
	자영업	42	11.9	54	14.0
	서비스업 종사원	51	14.4	17	4.4
	공무원	1	3	5	1.3
	기타	123	34.7	223	57.6
	무응답	3	8	3	8
월평균 수입	50만원 미만	207	58.5	88	22.7
	50~100만원 미만	127	35.9	82	21.2
	100~150만원 미만	6	1.7	93	24.0
	150~200만원 미만	4	1.1	63	16.3
	200만원 이상	1	3	48	12.4
	무응답	9	2.5	13	3.4
모자세대 사유	질병으로 인한 배우자 사망	155	43.8		
	교통사고 및 재해로 인한 배우자 사망	63	17.8		
	이혼	84	23.7		
	배우자로부터 유기	5	1.4		
	가출 또는 배우자 장기간 생사불명	21	5.9		
	미혼모	7	2.0		
	기타	12	3.4		
	무응답	7	2.0		

득층이라고 할 수 있다.

2) 모자가족의 어머니와 자녀의 가족기능 지각 비교

가족기능 하위영역별 평균 및 표준편차를 모자가족의 어머니와 자녀 집단별로 알아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모자가족의 어머니와 자녀가 지각하고 있는 가족기능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가족기능 7개 하위영역 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MANOVA를 실시한 결과는 아래 <표 3>과 같이 다변인변량분석 통계치 Wilks' Lambda ($F=13.588$, $P<.05$)를 포함한 모든 통계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기능 7개 하위영역 점수에서 어머니와 자녀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단변인변량분석(*Univariate analysis of variance*)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가족의 7개 기능 중 문제해결, 정서적 반응, 정서적 관여, 그리고 일반적 기능에서 어머니와 자녀의 지각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사소통기능, 역할기능, 그리고 행동통제 기능에서는 어머니와 자녀가 다르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족기능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즉, 의사소통 기능의 경우 모자가족은 자신의 가족이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각하고 있으며, 특히 자녀가 어머니에 비해 더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다. 역할기능과 행동통제 기능의 경우에도 역시 모자가족은 자신의 가족이 이들 두 기능에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의사소통 기능의 경우와는 반대로 어머니가 자녀에 비해 이들 두 기능의 문제를 더욱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모자가족의 어머니와 자녀들은 생활 전반에 대해 매우 서로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데, 특히 의사소통에서의 지각차이는 두드러진다. 자녀는 어머니와의 대화방식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솔직하게 표현하기를 주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각차이는 자녀들이 청소년기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정현숙·서동인, 1996).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지지적 분위기에서 자녀는 개성 있게 성장하며 가족이

〈표 2〉 모자가족 집단별 가족기능 점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

가족기능 하위영역	집단유형	N	Mean	SD
문제해결	어머니	285	13.7754	1.4627
	자녀	434	13.7143	1.7278
	Total	719	13.7385	1.6271
의사소통	어머니	285	16.6807	1.9982
	자녀	434	16.1774	2.2629
	Total	719	16.3769	2.1744
역할기능	어머니	285	20.1368	1.9335
	자녀	434	21.1636	2.4045
	Total	719	20.7566	2.2843
정서반응	어머니	285	12.9544	1.8485
	자녀	434	13.2189	2.3198
	Total	719	13.1140	2.1480
정서관여	어머니	285	19.4982	2.3371
	자녀	434	19.5392	2.9381
	Total	719	19.5229	2.7142
행동통제	어머니	285	22.9193	2.3714
	자녀	434	23.9171	2.3112
	Total	719	23.5216	2.3842
일반기능	어머니	285	30.8947	3.2157
	자녀	434	31.1889	4.3381
	Total	719	31.0723	3.9319

〈표 3〉 모자가족 집단별 가족기능의 MANOVA 결과 요약

Effect		Value	F	Hypothesis df	Error df	Sig.
Intercept	Pillai's Trace	.994	16319.048	7.000	711.000	.000
	Wilks' Lambda	.006	16319.048	7.000	711.000	.000
	Hotelling's Trace	160.666	16319.048	7.000	711.000	.000
	Roy's Largest Root	160.666	16319.048	7.000	711.000	.000
모자	Pillai's Trace	.118	13.588	7.000	711.000	.000
	Wilks' Lambda	.882	13.588	7.000	711.000	.000
	Hotelling's Trace	.134	13.588	7.000	711.000	.000

〈표 4〉 모자가족 집단별 단변인변량분석 결과 요약표

Source	Dependent Variable	Type III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모 자	문제해결	.643	1	.643	.243	.622
	의사소통	43.574	1	43.574	9.323	.002
	역할기능	181.358	1	181.358	36.475	.000
	정서반응	12.036	1	12.036	2.615	.106
	정서관여	.288	1	.288	.039	.843
	행동통제	171.258	1	171.258	31.403	.000
	일반기능	14.890	1	14.890	.963	.327
Error	문제해결	1900.199	717	2.650		
	의사소통	3351.283	717	4.674		
	역할기능	3565.048	717	4.972		
	정서반응	3300.612	717	4.603		
	정서관여	5289.083	717	7.377		
	행동통제	3910.158	717	5.453		
	일반기능	11085.349	717	15.461		
Corrected Total	문제해결	1900.843	718			
	의사소통	3394.857	718			
	역할기능	3746.406	718			
	정서반응	3312.648	718			
	정서관여	5289.371	718			
	행동통제	4081.416	718			
	일반기능	11100.239	718			

서로서로 개별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서로 의존하고 지지하도록 격려한다. 그러므로 청년기 특성상 의사소통에 지각차이가 있는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어머니와 자녀간의 의사소통방법을 개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역할기능과 행동통제에서 모자가족 어머니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자가족의 자녀들은 생활고에 지친 어머니를 즐겁게 하고 가사에 협조하는 과도한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Jung, 1996), 가족내에 역할전도나 역할혼란이 존재하며, 이

는 어머니들에게 정신적 압박을 느끼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어머니들이 현재의 부모 역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3) 모자가족과 일반가족의 가족기능 비교

(1) 어머니집단 유형간 비교

어머니집단 유형에 따른 가족기능척도 7개 하위영역 및 가족긴장척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계산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모자가족과 일반가족 어머니들이 지각하고 있는 가족기능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어머니집단 유형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가족기능 7개 하위영역과 가족긴장척도의 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MANOVA를 실시한 결과, <표 6>과 같이 다변인 변량분석 통계치 Wilks' Lambda ($F=14.395, P<.05$)를 포함한 모든 통계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기능 7개 하위영역과 가족긴장척도를 포함한 8개 종속변인에서 어머니집단 유형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단변인변량분석(*Univariate analysis of variance*)을 실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문제해결($F=43.408, P<.05$), 의사소통($F=18.440, P<.05$), 역할기능($F=51.637, P<.05$), 정서반응($F=30.510, P<.05$), 정서관여($F=30.686, P<.05$), 행동통제($F=43.517, P<.05$), 일반기능($F=18.280, P<.05$), 그리고 가족긴장($F=17.129, P<.05$)에서 모두 어머니집단유형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유형에 따른 4개 집단간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각 가족기능 7개 하위영역과 가족긴장척도별로 Scheffe의 사후검증절차를 적용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가족기능의 7개 하위영역에서 모자가족은 일반가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자신의 가족기능을 부정적으로 지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하위영역별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① 문제해결 기능에서 모자가족의 어머니들 모두가 일반가족의 어머니들에 비해 가족의 문제해결 기능이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지각하고 있다. 그리고 모자가족이 된 지 7년 이상인 집단의 어머니들이 0~3년 이하 어머니집단에 비해 가족의 문제해결 기능

〈표 5〉 어머니 집단 유형별 가족기능 및 가족긴장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가족기능 하위영역	어머니집단 유형	Mean	SD	N
문제해결	0~3년	13.3729	1.2443	59
	4~6년	13.1618	1.6537	68
	7년 이상	14.2701	1.2863	137
	일반가족	15.1164	1.6723	275
	Total	14.4638	1.7094	539
의사소통	0~3년	16.0169	2.0128	59
	4~6년	15.8824	1.6798	68
	7년 이상	17.4672	1.9291	137
	일반가족	17.4836	2.1636	275
	Total	17.1169	2.1303	539
역할기능	0~3년	20.1525	1.9723	59
	4~6년	19.5441	2.1816	68
	7년 이상	20.4453	1.7444	137
	일반가족	22.4364	2.4207	275
	Total	21.3154	2.4791	539
정서반응	0~3년	12.4407	1.7934	59
	4~6년	12.2206	2.0211	68
	7년 이상	13.5255	1.5815	137
	일반가족	14.4000	2.2829	275
	Total	13.6883	2.2024	539
정서관여	0~3년	18.9153	2.4018	59
	4~6년	18.3676	2.6649	68
	7년 이상	20.2701	1.7967	137
	일반가족	20.9745	2.4171	275
	Total	20.2412	2.4919	539
행동통제	0~3년	23.0339	1.8191	59
	4~6년	22.2059	1.6801	68
	7년 이상	23.2044	2.8158	137
	일반가족	25.0982	2.2412	275
	Total	24.0260	2.5607	539
일반기능	0~3년	30.9322	3.2793	59
	4~6년	30.3382	3.1980	68
	7년 이상	31.1533	3.2013	137
	일반가족	33.1091	3.8402	275
	Total	32.0241	3.7174	539
가족긴장	0~3년	18.9712	7.9858	59
	4~6년	21.5529	9.5957	68
	7년 이상	18.5788	8.4688	137
	일반가족	13.5735	10.9531	275
	Total	16.4432	10.3414	539

〈표 6〉 어머니집단별 가족기능 및 가족긴장의 MANOVA 결과 요약

Effect		Value	F	Hypothesis df	Error df	Sig.
Intercept	Pillai's Trace	.994	11129.418	8.000	528.000	.000
	Wilks' Lambda	.006	11129.418	8.000	528.000	.000
	Hotelling's Trace	168.628	11129.418	8.000	528.000	.000
	Roy's Largest Root	168.628	11129.418	8.000	528.000	.000
모자세대기간	Pillai's Trace	.490	12.928	24.000	1590.000	.000
	Wilks' Lambda	.554	14.395	24.000	1531.962	.000
	Hotelling's Trace	.724	15.890	24.000	1580.000	.000
	Roy's Largest Root	.590	39.103	8.000	530.000	.000

〈표 7〉 어머니 집단유형별 가족기능과 가족긴장도 단변인변량분석 결과 요약표

Source	Dependent Variable	Type III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어머니 집단유형	문제해결	307.744	3	102.581	43.408	.000
	의사소통	228.816	3	76.272	18.440	.000
	역할기능	742.412	3	247.471	51.637	.000
	정서반응	381.242	3	127.081	30.510	.000
	정서관여	490.431	3	163.477	30.686	.000
	행동통제	691.960	3	230.653	43.517	.000
	일반기능	691.229	3	230.410	18.280	.000
	가족긴장	5042.088	3	1680.696	17.129	.000
Error	문제해결	1264.301	535	2.363		
	의사소통	2212.820	535	4.136		
	역할기능	2563.971	535	4.792		
	정서반응	2228.394	535	4.165		
	정서관여	2850.214	535	5.328		
	행동통제	2835.676	535	5.300		
	일반기능	6743.458	535	12.605		
	가족긴장	52493.915	535	98.119		
Corrected Total	문제해결	1572.045	538			
	의사소통	2441.636	538			
	역할기능	3306.382	538			
	정서반응	2609.636	538			
	정서관여	3340.646	538			
	행동통제	3527.636	538			
	일반기능	7434.686	538			
	가족긴장	57536.003	538			

〈표 8〉 어머니 집단유형간 차이의 Scheffe 사후검증 결과 요약

종속 변인	어머니 집단유형		Mean Difference	Std. Error	Sig.
문제 해결	0~3년	4~6년	.2111	.2735	.897
		7년 이상	-.8972	.2394	.003
		일반가족	-1.7435	.2206	.000
	4~6년	0~3년	-.2111	.2735	.897
		7년 이상	-1.1083	.2280	.000
		일반가족	-1.9546	.2082	.000
	7년 이상	1.00	.8972	.2394	.003
		4~6년	1.1083	.2280	.000
		일반가족	-.8463	.1608	.000
	일반세대	0~3년	1.7435	.2206	.000
		4~6년	1.9546	.2082	.000
		7년 이상	.8463	.1608	.000
의사 소통	0~3년	4~6년	.1346	.3618	.987
		7년 이상	-1.4502	.3167	.000
		일반가족	-1.4667	.2918	.000
	4~6년	0~3년	-.1346	.3618	.987
		7년 이상	-1.5848	.3017	.000
		일반가족	-1.6013	.2754	.000
	7년 이상	0~3년	1.4502	.3167	.000
		4~6년	1.5848	.3017	.000
		일반가족	-1.6483E-02	.2127	1.000
	일반세대	0~3년	1.4667	.2918	.000
		4~6년	1.6013	.2754	.000
		7년 이상	1.648E-02	.2127	1.000
역할 기능	0~3년	4~6년	.6084	.3895	.487
		7년 이상	-.2927	.3409	.864
		일반가족	-2.2838	.3141	.000
	4~6년	0~3년	-.6084	.3895	.487
		7년 이상	-.9011	.3247	.054
		일반가족	-2.8922	.2965	.000
	7년 이상	0~3년	.2927	.3409	.864
		4~6년	.9011	.3247	.054
		일반가족	-1.9911	.2289	.000
	일반세대	0~3년	2.2838	.3141	.000
		4~6년	2.8922	.2965	.000
		7년 이상	1.9911	.2289	.000

〈표 8〉 계속

종속 변인	어머니 집단유형		Mean Difference	Std. Error	Sig.
정서 반응	0~3년	4~6년	.2201	.3631	.947
		7년 이상	-1.0849	.3178	.009
		일반가족	-1.9593	.2928	.000
	4~6년	0~3년	-2.201	.3631	.947
		7년 이상	-1.3050	.3027	.000
		일반가족	-2.1794	.2764	.000
	7년 이상	0~3년	1.0849	.3178	.009
		4~6년	1.3050	.3027	.000
		일반가족	-.8745	.2134	.001
	일반세대	0~3년	1.9593	.2928	.000
		4~6년	2.1794	.2764	.000
		7년 이상	.8745	.2134	.001
정서 관여	0~3년	4~6년	.5476	.4107	.620
		7년 이상	-1.3548	.3594	.003
		일반가족	-2.0593	.3312	.000
	4~6년	0~3년	-.5476	.4107	.620
		7년 이상	-1.9024	.3424	.000
		일반가족	-2.6.69	.3126	.000
	7년 이상	1.00	1.3548	.3594	.003
		4~6년	1.9024	.3424	.000
		일반가족	-.7045	.2414	.037
	일반세대	0~3년	2.0593	.3312	.000
		4~6년	2.6069	.3126	.000
		7년 이상	.7045	.2414	.037
행동 통제	0~3년	4~6년	.8280	.4096	.254
		7년 이상	-.1705	.3585	.973
		일반가족	-2.0643	.3303	.000
	4~6년	0~3년	-.8280	.4096	.254
		7년 이상	-.9985	.3415	.037
		일반가족	-2.8923	.3118	.000
	7년 이상	0~3년	.1705	.3585	.973
		4~6년	.9985	.3415	.037
		일반가족	-1.8938	.2408	.000
	일반세대	0~3년	2.0643	.3303	.000
		4~6년	2.8923	.3118	.000
		7년 이상	1.8938	.2408	.000

〈표 8〉 계 속

종속 변인	어머니 집단유형		Mean Difference	Std. Error	Sig.
일반 기능	0~3년	4 ~ 6년	.5940	.6317	.829
		7년 이상	-.2211	.5528	.984
		일반가족	-2.1769	.5094	.000
	4~6년	0~3년	-.5940	.6317	.829
		7년 이상	-.8150	.5267	.495
		일반가족	-2.7709	.4808	.000
	7년 이상	0~3년	.2211	.5528	.984
		4~6년	.8150	.5267	.495
		일반가족	-1.9558	.3713	.000
	일반세대	0~3년	2.1769	.5094	.000
		4~6년	2.7709	.4808	.000
		7년 이상	1.9558	.3713	.000
가족 긴장	0~3년	4~6년	-2.5818	1.7624	.543
		7년 이상	.3924	1.5425	.996
		일반가족	5.3977	1.4212	.003
	4~6년	0~3년	2.5818	1.7624	.543
		7년 이상	2.9741	1.4694	.252
		일반가족	7.9795	1.3415	.000
	7년 이상	0~3년	-.3924	1.5425	.996
		4~6년	-2.9741	1.4694	.252
		일반가족	5.0054	1.0359	.000
	일반세대	0~3년	-5.3977	1.4212	.003
		4~6년	-7.9795	1.3415	.000
		7년 이상	-5.0054	1.0359	.000

을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7년 이상 집단과 4~6년 집단, 그리고 0~3년 집단과 4~6년 집단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자가족의 기간이 어느 정도(7년) 경과하면 초기에 비해 가족의 문제해결기능이 점차적으로 순기능화 되어감을 시사해 주고 있다.

② 의사소통 기능의 경우, 모자가족 0~3년 집단과 4~6년 집단간이 7년 이상 집단이나 일반가족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의사소통 기능의 문제를 훨씬 심각하게 낮은 수준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자가족 7년 이상 집단과

일반가족집단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자가족 기간이 7년 이상이 되면 일반가족과 같은 정도의 의사소통 기능이 가족성원간에 이루어지나 모자가족 초기에는 가족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모자가족 어머니들이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족내의 의사소통은 부모-자녀관계의 질을 결정하고 이를 강화시키기도 하고 약화시키기도 하는 매개체이기 때문에 모자가족이 된 초기에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은 다른 문제를 예방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③ 역할기능에서는 모자가족 기간의 길이와 무관하게 모든 모자가족의 어머니들이 일반가족의 어머니들에 비해 가족의 역할기능이 원활히 되지 않는 것으로 지각하고 있다. 이는 모자가족의 경우 역할기능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적으로 순기능화 되지 않고 여전히 가족기능의 문제로 남아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모자가족의 어머니 대부분은 부양자로서의 가장의 역할을 해야 함은 물론 자녀에게 아버지로서의 역할까지도 해야 한다는 긴장과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러한 부담은 경제적으로 열악한 저소득 모자가족에게는 쉽사리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시간이 지나도 역할기능의 어려움은 여전히 남아 있다.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을 때, 자녀는 비로소 부모가 보여준 역할만큼 건강하게 되고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므로(남영옥, 1998) 저소득 모자가족의 부모-자녀 역할관계의 개선은 자녀양육의 성패에 관건이 된다.

④ 정서적 반응성의 경우에는 모자가족 0~3년 집단과 4~6년 집단간이 7년 이상 집단에 비해 보다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모자가족의 기간이 길어지면 가족성원간의 정서적 반응이 점차적으로 순기능화되어 가지만 7년 이상의 기간이 지나도 일반가족과 같은 정도로는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⑤ 정서적 관여기능 역시 정서적 반응기능과 같은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모자가족 0~3년 집단과 4~6년 집단간이 7년 이상 집단에 비해 가족성원간의 정서적 관여가 보다 부정적인 것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모자가족의 기간이 길어지면 가족성원간에 점차적으로 정서적 관여를 순기능적으로 하게 되지만, 7년 이상의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일반가족과 같은 정도가 되지 않음을 시사한다.

모자가족의 경우 자녀가 부모의 역할을 분담하는 과정에서 가족하위체계간의 경계

가 불확실하게 되고 산만하게 되어 정서적으로 밀착하게 된다. 서로간의 과도한 정서적 관여로 인해 가족성원들이 긴밀하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자녀들의 독립성을 저해한다. 그러므로 모자가족에 된 기간이 길고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정서적 관여는 가족의 역기능과 깊은 관계를 가지게 되어 일반가족과 같은 정도가 되지 않을 수 있다.

⑥ 행동통제 기능 경우에는 모자가족 0~3년 집단과 4~6년 집단간이 7년 이상 집단에 비해 가족성원간의 행동통제가 잘 안되는 것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7년 이상 집단이 일반가족보다 더 부정적으로 지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위의 정서적 반응기능과 정서적 관여기능과 마찬가지로 모자가족은 7년 이상의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일반가족과 같은 정도로 기능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자녀들이 성장하여 독립에 대한 욕구가 강해짐에 따라 기존의 관습이나 규범에 저항하는 발달적 특성이 있는데, 이를 통제하는 아버지의 역할이 부재한 모자가족에게 행동통제는 지속적인 과업으로 남는다.

⑦ 일반적 기능에서 모자가족은 일반가족보다 유의하게 낮은 정도로 기능하나, 모자가족 기간에 따른 집단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 일반적 기능은 다른 하위영역의 종합적인 성격이므로 세부적 특성을 시사하지는 않는다.

⑧ 가족의 긴장정도에 대하여 모자가족은 일반가족보다 가족긴장도를 더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모자가족의 기간에 따른 집단유형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자가족의 어머니들은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항상 가족의 긴장을 느끼고 있는 것을 시사한다.

저소득 모자가족의 어머니들은 경제적 어려움 외에도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역할기능, 행동통제의 기능, 의사소통의 기능 등에서 구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녀들과 원만하게 지낸다 해도 채워질 수 없는 고독과 성의 문제 및 정서적 문제 등이 있음을 감안할 때, 어머니들에게 지각되는 긴장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하여 만성적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다.

(2) 자녀집단의 비교

〈표 9〉는 자가족의 자녀와 일반가족의 자녀간 가족기능척도 7개 하위영역 점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계산한 결과이다.

모자가족과 일반가족의 자녀들이 지각하고 있는 가족기능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집단유형별(모자가족자녀집단, 일반가족자녀집단)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가족기능 7개 하위요인 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MANOVA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10>과 같이 변인변량분석 통계치 Wilks' Lambda ($F=73.293, P<.05$)를 포함한 모든 통계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기능 7개 하위영역 점수에서 집단유형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단변인변량분석(*Univariate analysis of variance*)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9> 자녀집단별 가족기능 점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

가족기능 하위영역	집단유형	Mean	SD	N
문제해결	모자가족 자녀	13.7143	1.7278	434
	일반가족 자녀	15.7085	1.9361	446
	Total	14.7250	2.0889	880
의사소통	모자가족 자녀	16.1774	2.2629	434
	일반가족 자녀	16.8520	2.3967	446
	Total	16.5193	2.3547	880
역할기능	모자가족 자녀	21.1636	2.4045	434
	일반가족 자녀	23.4350	2.7090	446
	Total	22.3148	2.8025	880
정서반응	모자가족 자녀	13.2189	2.3198	434
	일반가족 자녀	15.0987	2.3767	446
	Total	14.1716	2.5288	880
정서관여	모자가족 자녀	19.5392	2.9381	434
	일반가족 자녀	21.6704	2.6464	446
	Total	20.6193	2.9891	880
행동통제	모자가족 자녀	23.9171	2.3112	434
	일반가족 자녀	26.0650	2.3412	446
	Total	25.0057	2.5614	880
일반기능	모자가족 자녀	31.1889	4.3381	434
	일반가족 자녀	33.5359	4.1729	446
	Total	32.3784	4.4118	880

〈표 10〉 자녀집단별 가족기능의 MANOVA 결과 요약표

Effect		Value	F	Hypothesis df	Error df	Sig.
Intercept	Pillai's Trace	.993	18437.989	7.000	872.000	.000
	Wilks' Lambda	.007	18437.989	7.000	872.000	.000
	Hotelling's Trace	148.011	18437.989	7.000	872.000	.000
	Roy's Largest Root	148.011	18437.989	7.000	872.000	.000
세대유형	Pillai's Trace	.370	73.293	7.000	872.000	.000
	Wilks' Lambda	.630	73.293	7.000	872.000	.000
	Hotelling's Trace	.588	73.293	7.000	872.000	.000
	Roy's Largest Root	.588	73.293	7.000	872.000	.000

〈표 11〉 자녀집단별 가족기능차이 단변인변량분석 결과 요약표

Source	Dependent Variable	Type III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집단유형	문제해결	874.771	1	874.771	259.416	.000
	의사소통	100.100	1	100.100	18.411	.000
	역할기능	1134.809	1	1134.809	172.710	.000
	정서반응	777.226	1	777.226	140.880	.000
	정서관여	999.088	1	999.088	127.976	.000
	행동통제	1014.843	1	1014.843	187.502	.000
Error	일반기능	1211.557	1	1211.557	66.913	.000
	문제해결	2960.679	878	3.372		
	의사소통	4773.572	878	5.437		
	역할기능	5768.999	878	6.571		
	정서반응	4843.864	878	5.517		
	정서관여	6854.383	878	7.807		
	행동통제	4752.128	878	5.412		
Corrected Total	일반기능	15897.433	878	18.106		
	문제해결	3835.450	879			
	의사소통	4873.672	879			
	역할기능	6903.808	879			
	정서반응	5621.090	879			
	정서관여	7853.472	879			
	행동통제	5766.972	879			
	일반기능	17108.990	879			

가족기능 7개 하위영역 모두 모자가족과 일반가족의 자녀들이 지각하고 있는 가족기능의 정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문제해결 기능($F=259.416, P<.05$), 의사소통 기능($F=18.411, P<.05$), 역할기능($F=172.710, P<.05$), 정서적 반응기능($F=140.880, P<.05$), 정서적 관여기능($F=127.976, P<.05$), 행동통제 기능($F=187.502, P<.05$), 그리고 일반기능($F=66.913, P<.05$)에서 일반가족 자녀집단이 모자가족 자녀집단에 비해 자신의 가족기능이 보다 원활한 것으로 지각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상실감과 박탈감, 경제적 열악성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감과 열등감, 역할과중과 역할혼란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감 그리고 모자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 등이 모자가족 자녀들이 자신의 가족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데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5.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모자가족의 가족기능 특성을 발견하고자 모자가족의 어머니와 자녀 그리고 비교집단으로서 일반가족의 어머니와 자녀를 대상으로 조사연구를 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모자가족의 가족기능 특성

모자가족은 다음과 같은 가족기능의 특성을 보였다.

첫째, 모자가족 어머니는 일반가족 어머니에 비하여 가족기능의 하위영역 전반에 걸쳐 낮은 수준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모자가족의 자녀는 일반가족 자녀에 비하여 가족기능의 하위영역 전반에 걸쳐 낮은 수준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모자가족의 어머니와 자녀는 자신의 가족기능 평가에서 문제해결 기능, 정서적 반응기능, 정서적 관여기능 및 일반적 기능의 평가에 관해서는 차이가 없었다. 넷째, 모자가족의 어머니는 역할기능과 행동통제 기능에서 자녀보다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다섯째, 모자가족의 자녀는 의사소통 기능에서 어머니보

다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여섯째, 모자가족이 된 기간이 7년 미만인 가족이 7년 이상인 가족보다 가족기능의 모든 하위영역에서 낮은 수준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일곱째, 모자가족이 된 기간이 7년 이상인 가족은 역할기능과 행동통제 기능에서 일반가족보다 낮은 수준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밖의 기능에서는 일반가족과 같은 수준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모자가족은 대체로 어려운 가운데 잘 적응하고 있지만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면 가족기능에 다양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반드시 고려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2) 사회복지실천적 함의

모자가족의 가족기능이 일반가족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와 자녀들의 가족기능에 대한 평가가 다르게 지각되고 있으므로 이들의 안정된 생활을 위하여 가족기능의 향상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어머니들에게는 아버지의 역할과 어머니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역할모델과 행동통제능력을 보장하는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자녀들에게는 세대차이와 아버지 없는 가정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의사소통방법을 습득할 수 있는 훈련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한, 가정마다 지각된 가족기능의 특성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가족기능 향상 프로그램은 각 가족의 특성에 부합하도록 개별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어떤 프로그램을 시행함에 앞서서 가족기능을 먼저 사정하여 그에 적절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원리는 사회복지사들이 잘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이론을 적용할 수단이 매우 부족하다. 즉, 이러한 목적으로 가족기능을 사정할 수 있는 적절한 도구가 보급되지 않고 있으며, 가족기능별 문제유형으로 세분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할 만큼 인적·물적 자원이 충분하지 않다.

현재 사회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모자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은 크게 경제적 지원, 정서적 지원, 사회적 지원의 성격을 띠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경제적 지원에는 결연 후원금 지원, 구호비 지급, 취업과 부업 알선, 밑반찬 제공, 자녀학비 보조 등이 있다. 정서적 지원에는 정서나 건강문제를 위한 개별상담과 자조집단이 있고, 의사소통 방법, 부모역할 교육, 자녀 이해하기, 가족 캠프 등이 있다. 사회적 지원에는 야유회

개최, 문화행사 참여, 직업훈련, 취업 및 생활정보 제공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모자가족들이 제시하는 문제유형별 대중적 처방일 뿐, 저소득 모자가족이 겪고 있는 가족기능의 실제적인 문제에 대한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해결책으로는 부족하다. 더구나 가족기능 향상과 같이 대상자의 질적 변화를 추구하는 서비스는 양적 평가가 중심이 된 현재의 평가제도하에서는 발전을 위한 투자 우선순위에서 비교우위에 있기가 어렵다는 것도 문제점 중 하나이다.

또한 모자가족이 된 기간에 따라 문제가 되는 기능의 정도나 범위가 다르고 각 가족에 따라서 하위영역별로 기능 수준이 다르므로 그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우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한다.

모자가족은 모자가족이 된 기간에 따라 가족기능 수행정도에 차이가 있었다. 모자가족이 된 지 7년 미만, 특히 3년 이하의 모자가족은 심리적·사회적·경제적으로 자주 위기상황에 처하게 되므로 프로그램은 위기개입, 문제해결기법, 의사소통방법 등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변화된 역할을 수용하고 적응하도록 신속하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 7년 이상의 모자가족에게는 정신적 독립을 격려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7년 동안 모자가족은 어느 정도 새로운 생활양식을 구축하며 잘 적응하고 있으나 역할기능과 행동통제 기능이 다른 기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순기능적이지 못한 것은 그 동안 모자간에 형성된 상호의존성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족체계의 성숙을 위하여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새로운 분리-개별화를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자녀들을 위한 성장 프로그램 또한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한다. 모자가족 자녀들이 모든 가족기능 하위영역에서 지각한 가족의 기능수행 정도가 일반가족의 자녀들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는 점은 자못 우려할 만하다. 현재 모자가족 자녀들을 위해 많이 실시되고 있는 자아존중감 강화 프로그램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성장발달 과정에 따라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복지관의 경제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일회성 행사나 몇 개월에 한정된 프로그램에 그치고 있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느끼는 모자가족 자녀들을 이러한 가족기능 향상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out-reach 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

가족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되지 못하는 이유로 경제적 요인을 배제할 수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 수단이 결핍된 것은 개인과 가족의 유능감과 통제력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가족기능과 생산성을 저하시킨다. 그러므로 모자가족을 위한 가족기능 향상 프로그램과 가족기능 사정도구를 개발함과 동시에 경제적 지원을 내실있게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다. 저소득 모자가족의 가족기능 사정도구의 개발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원조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연구는 후속 과제로 제안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 권윤정. 1995.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이 인지하는 가족기능과 그의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고성혜·한유진. 1995. "편모가정 청소년의 가정환경에 대한 지각." 《한국청소년연구》 20. 봄호. pp. 60~73.
- 김동배·권중돈. 1998. 《인간행동과 사회복지실천》 학지사.
- 김선영. 1990. "미망인의 가족스트레스와 적응과정에 관한 연구: McCubbin Double ABCX 모델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순자. 1997. "통합적 가족치료 관리프로그램이 정신분열증환자의 가족기능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은영. 1990. "정신질환자 가족의 가족기능 수행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인숙. 1994. "빈곤모자가족의 자녀문제와 가족복지 접근." 《한국청소년연구》 19. 겨울호. pp. 5~18.
- 김준호·김선애. 1996. "가족의 구조 및 기능과 반사회적 행동." 《형사정책연구》 7(1), pp. 109~140.
- 남영옥. 1998. "가족의 심리역동적 환경이 청소년의 생존전략적 가출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Lazarus, R. 김정희 역. 1991. 《스트레스와 평가 그리고 대처》 대광출판사.
- 박소라. 1998. "정신분열병 환자와 가족을 위한 문제해결훈련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영란. 1984. 《저소득 모자가정의 자립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박영란·강철희. 1999. "저소득 모자가정 가구주의 자립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제3호, pp. 91~116.
- 신화용·조병은. 1996. "편부모가 인지한 가족환경과 사회·심리적 적응." 《'96 가정복지세미나 : 늘어나는 편부모가정》. 서울특별시/한국가족관계학회. pp. 7~32.
- 이영애. 1995. "만성신부전환자가 인지한 가족적응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유영주. 1993. 《한국가족의 기능연구》 교문사.
- 정문자·송성자. 1994. 《경험적 가족치료》 중앙적성출판사
- 전재일·이경은·이재재. 1997. 《모자세대의 욕구와 복지정책》 사회복지개발연구원.
- 조홍식·김인숙·김혜란·김혜련·신은주. 1998. 《가족복지학》 학지사.
- 정수경. 1993. "정신분열증환자의 질병기간에 따른 가족기능의 효과성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현숙·서동인. 1996. "편부모 가정의 자녀가 인지한 가족환경 및 사회·심리적 적응." 《'96 가정복지세미나 : 늘어나는 편부모가정》. 서울특별시/한국가족관계학회. pp. 37~64.
- 조성혜. 1997. "집단 프로그램을 통한 모자가족의 자조집단 형성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희선. 1996. "편부모 가정복지의 실제와 향상방안." 《'96 가정복지세미나 : 늘어나는 편부모가정》, 서울특별시/한국가족관계학회, pp. 67~114.
- Amato, Paul R. 1987. "Family Processes in One-Parent, Stepparent, and Intact Families: The Child's Point of Vie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 May. pp. 327~337.
- Bomar, P. J. 1990. "Perspectives on Family Health Promotion." *Family Community Health*, 12(4). pp. 217~222.
- Epstein, Nathan B., Baldwin, Lawrence M. & Bishop, Duane S. 1983. "The McMaster Family Assessment Device."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9(2). pp. 171~180.
- Germain, C. B. & Gitterman, A. 1980. *The Life Model of Social Work Practice*.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 Hanson, Shirley M. H. 1986. "Healthy Single Parents Families." *Family Relations*, 35. January. pp. 125~133.
- Jung, Marshall. 1996. "Family-Centered Practice with Single Parents." *Families in Society*, 77(9). pp. 583~590.
- Leff, J. & Vaughn, C. 1981. "The Role of Maintenance Therapy and Relatives' Expressed Emotion in Relapse of Schizophrenia."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39.

pp. 102~104.

- Mikolwitz, D. J., Goldstein, M. J., Falloon, I. R. H. 1984. "Interactional Correlates of Expressed Emotion in Families of Schizophrenics."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44. pp. 482~487.
- Miller, Ivan W., Epstein, Nathan B., Bishop, Duane S. & Keitner, Gabor I. 1985. "The McMaster Family Assessment Device: Reliability and Validity."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11(4). pp. 345~356.
- Olson, D. H., Russel, C. & Sprenkle, D. H. 1983. "Circumflex Model of Marital & Family System IV: Theoretical update." *Family Process*. 22. pp. 69~83.
- Olson, Myrna R. & Haynes, Judith A. 1993. "Successful Sing Parents." *Families in Society*. 74(1-5). pp. 259~267.
- Riachrads, L. & Schmiede, C. 1993. "Problems and Strengths of Single-Parent Families : Implications for Practice and Policy." *Family Relations*. 42.
- Turner, Jeffrey S. & Helms, Donald B. 1983. *Lifespan Development* (2nd ed.). New York: Holt, Rienhart and Winston. pp. 296~313.

Some Characteristics of Their Family Functions Perceived by Mothers and Children of Single-Mothers

Kwon, Bok Soon

(Catholic University of Taegu-Hyosung, Dept. of Social Welfa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some characteristics of the family functions of single mothers to provide some useful data for the development of programs which may help single mothers to improve their family functions. The McMaster Family Assessment Device (FAD) which is composed of problem solving function (PS), communication function (CF), role function (RC), emotional reaction function (ER), emotional involvement (EI), behavioral control function (BC), and general function (GC) and McCubbins' FSI were administered to single mothers and their adolescent children and mothers and their adolescent children of ordinary families (control family).

The single mothers' perception of their family function was lower than that of control family mothers in all the 7 categories of FAD. The perceptions of the family function of the single mothers' children were lower than those of control family mothers' children.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perceptions of single mothers and their children in PS, ER, EI, GC of their family. However, single mothers' perception in RC and BC was lower than that of their children, and the children's perception in CF were lower than that of their mothers. Single mothers who fall on the period of single motherhood was shorter than 7 years perceived their families' function as lower than that of single mothers' who fall on the periods of single motherhood longer than 7 years in all categories. Generally speaking, the single mothers' family functions were lower than that of control family. The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each single mother's family functions should be considered in developing programs for single mothers.